



## Communication on Progress(COP)

한국경제연구원(신한CSO)이 발간하는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를 위한  
책입니다.

2010년 1·2호

# HERI Review

2009 글로벌 CSR 대상

## 글로벌 경쟁력 벗어나 '사회책임경영' 한아름



사회책임경영(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이 지녀야 하는 책임 수 있는 중요한 경영이념이다. 자라 고 부각되고 있으며, 구매력이 높은 고객은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것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요구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의미가 없다.

한국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책임경영은 기업이 지녀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책임경영은 기업이 지녀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4대 부문별 수상 기업 선정

제조업 부문	SK하이닉스
서비스 부문	삼성전자
에너지 부문	SK에너지
화학 부문	SK화학



# Contents

- UNGC 지지 선언문 ..... 3
- 기업개요 ..... 4
- 주요연혁 ..... 5
- 조직도 ..... 6
- 사업영역 ..... 7
- UNGC 10대 원칙 ..... 8
- 한눈에 보는 한겨레신문사 COP .. 9
- 10대원칙 이행내용\_보도 ..... 10
- 10대원칙 이행내용\_연구 및 교육 15
- 10대원칙 이행내용\_경영 ..... 16



# UNGC 지지 선언문

1987년 창립된 한겨레신문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참언론을 표방하고, 시대정신의 개척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국민들은 모금을 통해 한겨레신문사의 설립과 일간신문 한겨레신문사의 창간을 도왔습니다. 1988년 창간된 한겨레신문사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독립 언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이제 그동안 키워 온 참언론으로서의 자부심을 지켜가며,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겨레신문사는 2007년 UN글로벌컴팩트에 가입했으며, 이번에 첫 COP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이 보고서에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가지 주요 분야에 걸쳐 한겨레신문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겨레신문사는 1988년 5월 한국 개별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해 공정보도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바깥으로는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안으로는 임직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사 사규는 UN글로벌컴팩트 10대 원칙에서 지향하고 있는 ‘인권 보호’, ‘노동권 보장’, ‘환경 보호’,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세부 시행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국경을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위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간신문 <한겨레>, 주간지 <한겨레21>과 <씨네21>, 월간지 <이코노미 인사이트>, 인터넷한겨레, 웹방송 하니TV 등 한겨레신문사 및 자회사가 발간 중인 각종 매체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취재보도 활동을 수행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크탱크 한겨레경제연구소에서는 한국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등의 깊이 있는 활동으로 UN글로벌컴팩트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 보고서를 내는 것을 계기로 한겨레신문사는 UN글로벌컴팩트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중요한 화두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한겨레신문사가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고광현

# 기업 개요



**한겨레신문사** | Hankyoreh Media Group



업 체 명	한겨레신문(주)
사업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간</li> <li>• 서적 및 출판인쇄</li> <li>•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li> <li>• 광고 제작 및 판매</li> <li>• 교육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락, 문화 및 스포츠</li> <li>▪ 방송채널사용</li> <li>▪ 부가통신사용</li> <li>▪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li> </ul> </li> </ul>
임직원 수	503명
UNGC 가입일	2007년 8월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6-25번지 한겨레신문사 빌딩
연 락 처	1566-9595

## 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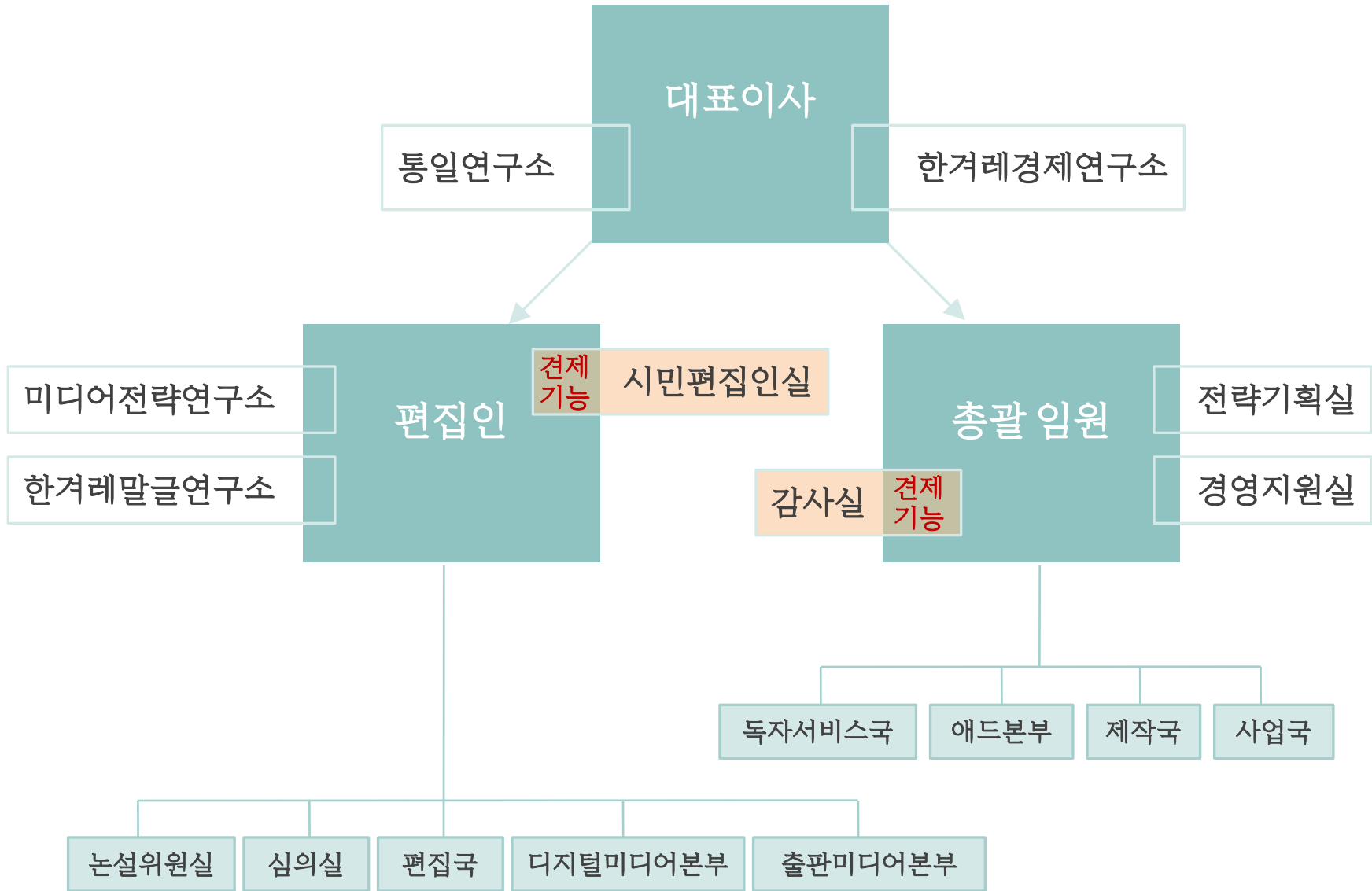
- 87. 9. 1 창간발의 준비위원회 구성
- 87. 10. 22 새 신문 제호 결정 (한겨레신문)
- 87. 11. 08 한겨레신문 창간 발기인 3,342명의 명단 발표
- 87. 12. 14 한겨레신문주식회사 창립총회 개최 및 대표이사 선임 (송건호)
- 88. 02. 25 창간기금 모금 완료 (50억원)
- 88. 05. 05 신문윤리강령 제정 (신문사 최초)
- 88. 05. 15 한겨레신문, 창간호 발행
- 89. 06. 10 발전기금 국민모금 완료 (119억 2천만 원) 총자본 169억 2000만원

## 1990년대

- 91. 12. 14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사옥 입주
- 92. 09. 01 PC통신망에 <한겨레>기사 제공 서비스 시작
- 94. 03. 16 시사주간지 <한겨레21> 창간
- 95. 03. 13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개관
- 95. 04. 24 고급 영화, 영상 주간지 <씨네21> 창간
- 96. 04. 27 인터넷 뉴스 서비스 시작
- 97. 06. 03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설립
- 97. 07. 30 한겨레통일문화연구소 신설
- 99. 12. 16 공덕동 사옥 제2차 증축 준공
- 99. 12. 22 자회사 <인터넷한겨레(뉴미디어,유통, 여행사업)> 독립법인 설립

## 2000년대

- 02. 03. 01 디지털 위성방송 정보지 <스카이라이프>(SkyLife) 창간
- 03. 08. 01 자회사 <씨네21주식회사> 설립
- 04. 05. 31 제1회 참언론상 수상
- 04. 06. 14 한겨레신문 제1회 한반도평화상 수상
- 05. 05. 15 한겨레 제2창간 운동 추진
- 06. 01. 02 자회사 한겨레출판(주) 설립
- 06. 05. 16 인터넷한겨레 영문판 서비스 시작
- 07. 02. 28 한겨레경제연구소 설립
- 07. 12. 05 자회사 한겨레미디어마케팅(주) 설립
- 08. 01. 02 자회사 한겨레에스앤씨(주) 설립
- 08. 08. 01 자회사 한겨레교육(주) 설립
- 08. 11. 24 미디어전략연구소 신설
- 09. 04. 01 자회사 한겨레실버서비스(주) 설립
- 09. 05. 04 지성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제후 발간
- 10. 01. 01 자회사 '한겨레엔' 본사 통합
- 10. 05. 03 경제월간지 <이코노미 인사이트> 창간





## 사업 영역 사업 내용

### 제조업

-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 및 인쇄
- 서적출판 및 인쇄
-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
- 광고물 제작

### 서비스업

- 광고업
- 교육서비스업
-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 방송채널사용 사업
- 부가통신사용 사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UNGC 10대 원칙

##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노동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원칙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원칙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원칙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원칙 9: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여야 한다.

##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한눈에 보는 한겨레신문사 COP

## 보도 활동



한겨레21,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한겨레 21, '노동 OTL',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기자상 수상

## 연구 및 교육 활동



### “사회책임투자 평가지수 만들기” 글로벌 사회책임경영 콘퍼런스 제안

“이제는 한국형 사회책임투자(ESG) 평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이아는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지수를 만들자는 차이를 제안했다. 이이아는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지수를 만들자는 차이를 제안했다. 이이아는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지수를 만들자는 차이를 제안했다.

‘2009 글로벌 사회책임경영(CSR) 콘퍼런스’

### 사회적기업학교 첫 수료생 배출 200여 사회혁신가 “지금부터 시작”



한겨레경제연구소와 성명회대학교가 함께 진행한 ‘2009 사회적기업학교’의 수강생들이 지난 11월28일 성명회대 미로사극장에서 수료식에 참석했다.

‘2008~2010 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

## 경영 활동



언론사 최초 여성 편집국장 배출



언론사 최초 윤리강령 제정



# 한겨레신문사 보도 활동

한겨레신문사는 UNGC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관련 기사를 적극적으로 신고 있습니다.

영역	주요 보도 활동	성과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중동문화원 1년 만에 문 닫다니”(한겨레신문, 20081205)</li> <li>• “군대에서 숨진 여호와의증인 국가책임”(한겨레신문, 20090106)</li> <li>• “경기도 학생 101만 명에 무료급식”(한겨레신문, 20090429)</li> <li>• “우리는 성상납 강요 받았다”(한겨레21, 20090713)</li> <li>• “신무기감청”(한겨레 21, 776호)</li> <li>• “강기훈씨 두 번 죽이는 검찰”(한겨레신문, 20090928)</li> <li>• “1기 뉴타운왕십리, 세입자들은 어디”(한겨레신문, 20090930)</li> <li>• “검찰, 공안사범 영구관리 지침”(한겨레신문, 20091016)</li> <li>• “국정원, 2004년부터 실시간 ‘패킷 감청’”(한겨레신문, 20091103)</li> <li>• “정보공개 요구는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한겨레신문, 20091104)</li> <li>• “생활고 엄마의 ‘모진 선택’”(한겨레신문, 2009111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한겨레2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수상</li> <li>• 2009년 3월 ‘인천 중동문화원’ 다시 개방</li> <li>• 기사와 사설로 무상급식 시행을 적극 주장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최대 쟁점이 됐고 이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li> </ul>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집회금지 위헌제청 판사 사직서”(한겨레신문, 20090202)</li> <li>• “쌍용차 파국 막자 노사 물밑대화”(한겨레신문, 20090729)</li> <li>• “노동 OTL”(한겨레21, 779~793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겨레 21, ‘노동 OTL’, 제232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li> </ul>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네 갈 땐 자동차 멀리 갈 땐 자전거”(한겨레신문, 20090511)</li> <li>• “북악산 아래 청와대도 있고, 북악산 깎은 천신일 박물관도 있다”(한겨레신문, 20090522)</li> <li>• “4대강 준설토 처리 ‘지자체가 비용 대라’”(한겨레신문, 2009102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부 혁신도시 내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안 마련</li> </ul>
반부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주로변경 없다는 공군 6년 전엔 ‘각도 변경 문제 있다’”(한겨레신문, 20090117)</li> <li>• “전원합의체에 삼성사건 회부”(한겨레신문, 20090225)</li> <li>• “용산커넥션”(한겨레21, 748호)</li> <li>• “전 한나라 의원 현승일씨 모시려 한다”(한겨레신문, 20090331)</li> <li>• “MB정부, MBC장악 위해 20년 후퇴”(한겨레신문, 20090629)</li> <li>• “시도지사 불법기부, 배임 의혹”(한겨레신문, 20090630)</li> <li>• “동아일보 주가조작 50억원대 시세차익”(한겨레신문, 20090701)</li> <li>• “천성관 수상한 고급승용차 리스”(한겨레신문, 20090701)</li> <li>•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부인 위장전입”(한겨레신문, 20090912)</li> <li>• “청와대, 통신사 압박 250억 기금요구”(한겨레신문, 20091007)</li> <li>• “정총리 억대연봉 민간 경제연구소로부터 받아”(한겨레신문, 20091007)</li> <li>• “국세청 검찰, 효성3세 국외부동산 조사”(한겨레신문, 2009102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성관’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li> <li>• 검찰, ‘동아일보’ 오너 등 주가 조작 본격수사</li> </ul>



# 한겨레신문사 보도 활동\_인권

한겨레신문사는 UNGC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인권' 관련 기사를 적극적으로 싣고 있습니다

- <한겨레>는 2008년 12월 5일 사회면 '중동문화원폐쇄'에서 종교 차별 논란을 겪은 이슬람교도의 인권에 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 <한겨레>는 2009년 4월 29일, '무상급식'에서 저소득층 인권에 대해 사회면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 처음 설립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중동문화원이 돌연 폐쇄 결정돼 아랍권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문화원에서 아랍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인천/중동문화원 제공

인천 중동문화원 1년만에 문 닫다니...

## 성난 아랍국가들

'인천중동문화원 1년 만에 문 닫아(2008. 12. 5)'

## 경기도 학생 101만명에 무료 급식

김상곤 교육감 당선자, 내년까지 80만명 늘려...초·중·고생 55.4% 혜택

김상곤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28일 "내년 말까지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사립학교, 농산어촌의 중·고교생 등 모두 101만 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임기 내 도내 전체 초·중·고교생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정책은 광역 단위에서는 첫 시도다. ▶관련기사 14면

시기	대상	인원	현재 예산	추가 소요액
현재 2009년 1학기	특수학교 학생·저소득층 자녀 등	21만4159명	1915억원	
1단계 2009년 2학기	섬외면 지역, 농산어촌, 소도시 등 초·중·고교생	15만3620명	2176억원	261억원
2단계 2010년 1학기	지평도 평균이하 지역과 섬·외면 지역, 농산어촌 중·고교생	5만2801명	2772억원	541억원
3단계 2010년 2학기	전체 초·중·고교생	99만1922명	3838억원	532억원

자료: 경기도 교육청, 김상곤 당선자 캠프

생 13만명 등 101만명에게 제공한다. 이는 경기도 전체 초·중·고교생의 55.4%에 이르는 비율이다. 그동안 충북, 경북, 경기 과천시·성남시·포천시 등지에서 제한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해 왔으나, 이번처럼 초·중·고교생 전체에게 무료급식을 제공

한 사례는 없었다. 무료급식은 1단계로 올해 2학기부터 섬, 외면 지역, 농산어촌, 소도시 지역의 초·중·고교생 15만여명에게 확대되고, 2단계로 2010년 1학기에는 재정지립도 평균이하 도시지역 초·중·고교생 3만5000여명과 섬, 외면 지역, 농산어

촌의 중·고교생 1만7000여명에게도 적용된다. 3단계로는 2010년 2학기에 도내 전체 초·중·고교생으로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경제위기로 부모가 하고·장기 실직된 초·중·고교생 8만명에게도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급식 재료 공급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무료급식 확대에 따른 예산은 1단계에서는 지난해 일여 예산에서 261억원의 사입비를 마련하고, 2단계에는 전시장 예산이나 사업 항목을 통합해 마련하며, 초·중·고교생 전체에게 무료급식이 제공되는 3단계에서는 자치단체들과 비용을 동반의 부담에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수원/송홍기 기자 yhong@hani.co.kr

'경기도 학생 101만 명에 무료급식(2009. 3. 8)'



# 한겨레신문사 보도 활동\_노동

한겨레신문사는 UNGC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동’ 관련 기사를 적극적으로 싣고 있습니다

- <한겨레>는 2009년 7월 29일 사회면 ‘쌍용차 파국 막자, 노사 물밑 대화’에서 사측과 노동자 그리고 정부의 대화 노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 <한겨레21>은 779호부터 793호에 이르는 4개월간 노동 OTL시리즈를 보도해 노동자들의 힘들고 고된 삶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오른쪽 둘째) 등 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연동포역 앞에서 시민들한테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사명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연동포역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원외투쟁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앞으로 서명운동과 거리홍보를 비롯해 지역연봉사 및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긴담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갑진수 기자 jsk@hani.co.kr

## 쌍용차 ‘파국 막자’ 노사 물밑대화

‘쌍용차 ‘파국 막자’ 노사 물밑 대화 (2009. 7. 29)’



‘한겨레 21 노동 OTL(2009. 9. 28)’



# 한겨레신문사 보도 활동\_환경

한겨레신문사는 UNGC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환경’ 관련 기사를 적극적으로 싣고 있습니다

- <한겨레>는 2009년 5월 11일, 사회면 ‘동네 갈 땀 자동차, 멀리 갈 땀 자전거’ 에서 녹색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던 ‘자전거 도로 확충’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 <한겨레>는 2009년 10월 22일 사회면 ‘4대강 준설토 처리 지자체가 비용 대라’에서 환경 보호 및 예방적 접근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 4대강 준설토 처리 “지자체가 비용대라”

### 국토부, 골재 적치장 확보 예산 떠넘겨 지자체 “수백억씩 부담 너무 커” 반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 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하자 일부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토부의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을 공개하며, “국토부가 전국 72곳의 준설토(골재·사토) 적치장 확보 예산을 30개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지난 6월30일 전국 16개 시·도에 내려보낸 이 지침은 “(준설토의) 골재 적치장까지 운반은 해당 하천공사 시공자가 담당하고, 골재 적치장 확보와 생산·판매 관리, 선별 과정에서 발생된 잔토 처리 등은 시장·군수가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30개 시·군은 상당 기간 준설토를 쌓아둘 적치장 터를 미리 확보해야 하며, 이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다가 추후 골재 판매 수익 등으로 메워야 한다.

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초기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경북 고령군은 적치장 터 보상비 등으로 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고령군 올해 예산 2000억원의 15%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부지 매입비가 워낙 많이 들어 고심”이라며 “장기 처리의 공공자금 용자를 받는 것 등 자급 마련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군정이 사채 빌려도 돈을 마구 빌려다 쓸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북 예천군도 적치장 건설에 올해 예산의 10% 정도인 250억~26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적치장 예정 지역이 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이라 토지 매입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며 “골재 판매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천군 역시 공공자금 대출을 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광주광역시도 2년 동안 155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우선 내년 예산에 70억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골재 판매 비용을 우선 사업으로 잡아두고 있다”며 “이를 매우기 위해 어떻게 하면 골재 판매를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산하 도시공사에 골재 판매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골재 채취가 대표적인 산업이어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남 창원군도 기대 반 우려 반이다. 30개 시·군이 일제히 골재 생산·판매에 나서면 골재 값이 폭락해 수익성이 줄어들 것이라 예측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골재 판매 등 사업 수익성이 불투명한 만큼 적치장 터 마련 등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 판매로 수익이 생기는 만큼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당연하다”며 “경북과 호남의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창에 기자, hongbyul@hani.co.kr

‘동네 갈 땀 자동차 멀리 갈 땀 자전거(2009. 5. 11)’

‘4대강 준설토 처리 지자체가 비용 대라(2009. 10. 22)’



# 한겨레신문사 보도활동\_반부패

한겨레신문사는 UNGC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반부패’ 관련 기사를 적극적으로 싣고 있습니다

- <한겨레>는 2009년 7월 1일, 정치면 ‘천성관 수상한 고급승용차 리스’에서 당시 법무부장관 내정자였던 천성관 후보자의 비리를 보도 한바 있습니다.
- <한겨레>는 2009년 10월 23일 사회면 ‘국세청·검찰, 호성3세 국외부동산 조사’에서 재벌 일가의 탈세 혐의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천성관 ‘수상한’ 고급승용차 리스

### 건설업체서 넘겨받아 검찰총장 내정지후 승계서류 작성 대표와 30여년 ‘친분’...아파트 주차대장에 적년 등록

천성관과 검찰총장 후보자, 건설업계가 리스해 쓰던 고급 승용차를 넘겨받아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승용차를 넘긴 업체 대표는 천 후보자와 30년 이상 교분이 있는 사형으로, 천 후보자와 기업인들의 특별한 관계가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천 후보자는 기업인 배우우회개편에서 15억5000만원의 돈을 빌려 집을 신 사할 이 드러나기도 했다.

7월 천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자료를 확인

물론 후보자가 무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정문의 중미팀 관계자는 “이 차는 당시 석재의 아들이 이용했는데, 주차비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천 후보자의 아파트에 자주 주차를 했다”며 “이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을 발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순히 주차 때문에 남의 차 주차장을 발급해 줬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석재 아들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스 계약이 검찰총장 후보자 발표 직후라는 점과, 인사청문 자료에 묻어 있는 리스 계약 관련 일부 서류의 날짜가 지워져 있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는 “월25일에 계약을 맺었지만, 인사청문 시점으로 맞춰달라고 관계자에게 요청해 서류 발급일이 6월23일로 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민 승인 2009.7.1 hankyoreh.com

## 국세청·검찰, 호성3세 국외부동산 조사

### 국세청 조사관 곧 미국 파견...검찰 내사 착수 조현준 사장 샌프란시스코 고급콘도도 사들여

조세회피그룹 최강의 팔아들이인 조현준(호성3)이 2004년 12월에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콘도를 사들인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호성3세들의 국외 부동산 취득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검찰과 국세청이 사실 확인 조사에 나선 것을 조사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이

나 기업을 담당하는 조사관 소속의 조사관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조현준 사장과 조 회장의 셋째 아들인 조현상(호성3 전무)과 미국 부동산 취득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도 조 회장 아들들의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 과거 호성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1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 맡겨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또 공소사유가 남았는지 계속 쫓고 있다. 조 사장이 2004년 12월

‘천성관 수상한 고급승용차 리스(2009. 7. 1)’ ‘국세청·검찰, 호성3세 국외부동산 조사(2009. 10. 23)’



# 한겨레신문사 연구 및 교육 활동

한겨레신문사는 UNGC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한겨레경제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영역	제목(연도)	성과
연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기업 지속가능경영 평가결과 연구(2007)</li> <li>•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2007)</li> <li>• 동아시아기업의 CSR(2008)</li> <li>• 한국토지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토(2008)</li> <li>• 위기관리전략으로서의 CSR(2009)</li> <li>• 다솜이재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2009)</li> <li>• 기업명성조사(20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3개국 CSR전문가 미팅을 통해 동아시아 특성이 반영된 CSR 개념 확산</li> <li>• 사회적기업 비재무정보 공개 유도</li> <li>• 공기업 비재무정보 공개 유도</li> <li>• 기업의 CSR활동과 기업명성 사이의 관계 입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기업의 CSR 세미나(2008)</li> <li>• 위기관리전략과 사회책임경영(20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SR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경영학교(2007~2010)</li> <li>• 사회적기업가 학교(2008~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li> <li>- 청년사회혁신가 과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SR 개념의 확산과 관심 유도</li> <li>• 환경 및 노동에 대한 사회적기업가 의식 고취</li> </ul>
교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헌 프로그램 공모전(2008~2009)</li> <li>• 윤리적 소비 공모전(2009~20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SR 개념의 확산과 관심 유도</li> </ul>



# 한겨레신문사 경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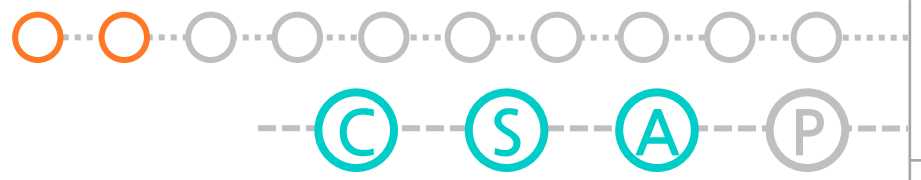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는 UNGC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회사 내부 규칙을 공약으로 삼고, 이를 시스템화 해 구체적인 활동과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원칙	주제	공약	시스템	활동	성과
1-2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겨레 사규 5장 46조</li> <li>UNGC 기준 지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자금 지원제도</li> <li>인권을 위한 복리후생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고교, 대학생 자녀를 둔 임직원 대상</li> <li>짬 카페 등 편의시설</li> <li>전 임직원 4대 보험제공</li> <li>정기 건강검진 실시</li> <li>주 5일 근무 제도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학자금 지원 금액</li> </ul>
3	단체교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겨레 단체협약 조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사주 겸임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내부 회의에 노조 및 노조 관계자 참여</li> <li>경영설명회 정례화</li> <li>‘진보언론’외 ‘한소리’ 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원 숫자 및 가입률</li> </ul>
4	강제노동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겨레 취업규칙 16, 18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무 휴가 사용</li> <li>특근 및 야근 수당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팀원 의무 휴가 미사용 시 부서장 인사과과 불이익</li> <li>안식월 제도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휴가 사용 비율</li> <li>안식월 사용자 수</li> </ul>
5	아동노동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겨레 취업규칙 호봉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성년 경력 불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성년자를 고용한 사례 없음</li> </ul>
6	업무차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겨레사규 제 79조 ‘모성보호와 남녀평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일 호봉제</li> <li>윤리 및 인사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자 및 경영관리직에 일관된 호봉제 적용</li> <li>여성 권익 개선을 위한 활동</li> <li>채용 시 학력차별 철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 직원 비율</li> <li>여성회 및 주요 안건 내용</li> <li>언론사 최초 여성 편집국장</li> </ul>
7	환경문제 사전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GC 기준 지지</li> <li>국제적 수준의 환경문제 사전 예방을 위한 공약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심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예방적 사업 및 제도 계획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상 녹화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상 녹지 조성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효과</li> </ul>
8	환경적 책임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GC 기준 지지</li> <li>국제적 수준의 기업 환경 책임 증진을 위한 공약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개 분야에서 환경기준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장실 중수도 사용</li> <li>유가 위주로 발행</li> <li>엘리베이터 운행 조절</li> <li>파지 매각</li> <li>잔지 발행 자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 사용량</li> <li>물 사용량</li> <li>종이 재활용 개선율</li> </ul>
9	환경적 기술 개발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GC 기준 지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낭비를 막기 위한 자동화 기술 도입 계획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화 시설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 혁신 후 에너지원 개선</li> </ul>
10	반부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겨레 윤리강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문고시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뢰도 조사 및 공개</li> <li>윤리위원회 구성 및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문사 신뢰도</li> </ul>





# 10대 원칙 이행 내용



## 인 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공약 (Commitment)

- 2007년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언론사로는 최초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사는 사규 제5장 46조에서 ‘임직원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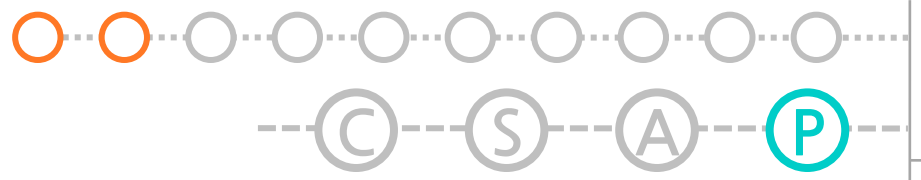
- 한겨레신문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사는 임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복리후생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행동 (Activities)

- 한겨레신문사는 국내외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사는 본관6층에 카페 ‘짬’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사는 전 임직원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사는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사는 한겨레신문사는 전 임직원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10대 원칙 이행 내용



## 인 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성과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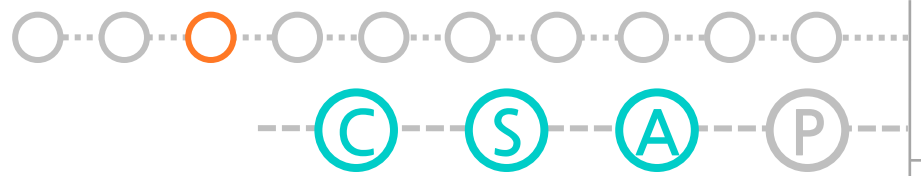
- 한겨레신문사는 2009년 모두 324건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모두 305,251,243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전체 신청 학자금 478,187,590원의 63.8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신청자는 고등학생 222건 대학생이 120건이었습니다.



<2010년 6월에 문을 연 카페 짬은 한겨레신문사 임직원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10대 원칙 이행 내용



## 노동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공약 (Commitment)

- 한겨레신문사는 사규 ‘단체협약’에 근거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인정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와와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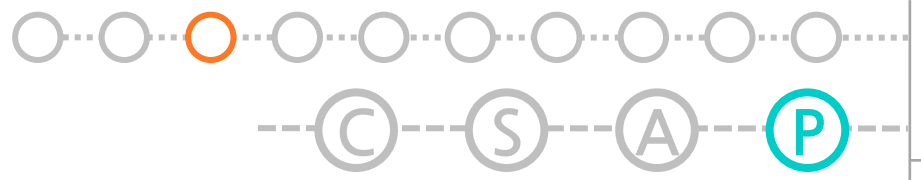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는 우리사주 겸임조합으로써 신문사의 경영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행동 (Activities)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는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는 이사회에 사외이사과 감사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에 직접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는 경영진과 협의를 통해 경영설명회를 정례화하고, 1년에 세 번(4,8,11월) 개최하도록 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는 <진보언론>외 <한소리> 발행을 통해 경영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10대 원칙 이행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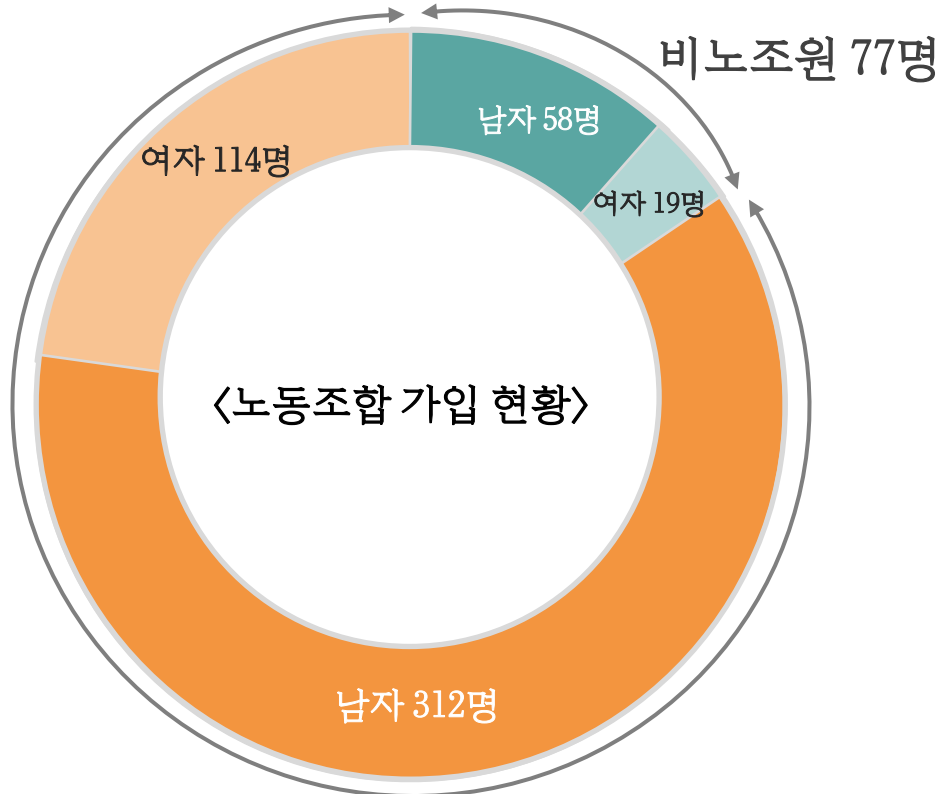
## 노동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성과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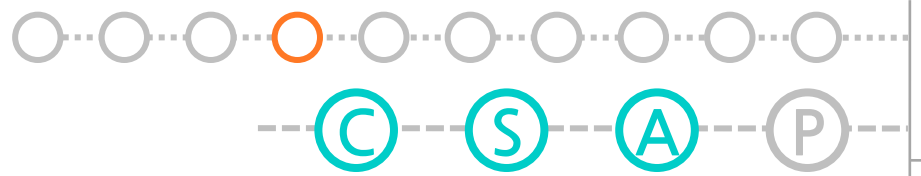
- 한겨레신문사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임직원 503명 가운데, 85%**에 이르는 **426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조원 426명  
(전체의 85%)





# 10대 원칙 이행 내용



## 노동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공약 (Commitment)

- 한겨레신문사는 **취업규칙 16조와 18조에 근무시간의 범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건강과 더 나은 업무환경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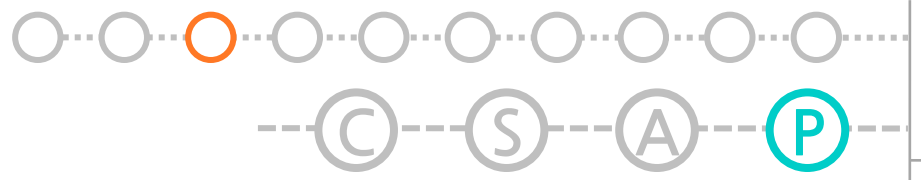
- 한겨레신문사는 임직원들의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휴가 사용 현황을 집계해 통지**합니다.

### 행동 (Activities)

- 한겨레신문사는 부서별로 직원들의 의무휴가 사용 비율이 부진할 경우, 부서장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강제노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사는 안식월 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년 재직자 2주, 10년 재직자 1개월 등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10대 원칙 이행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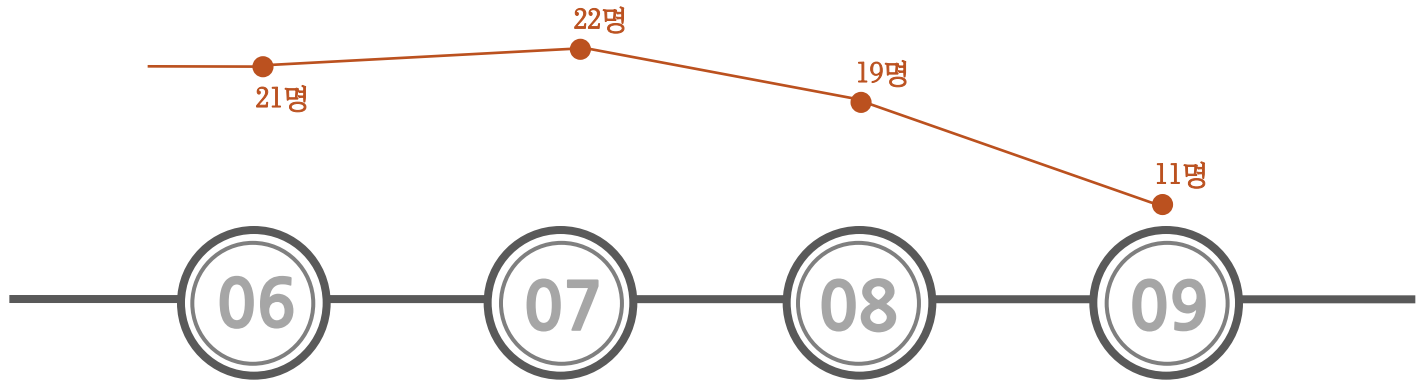
## 노동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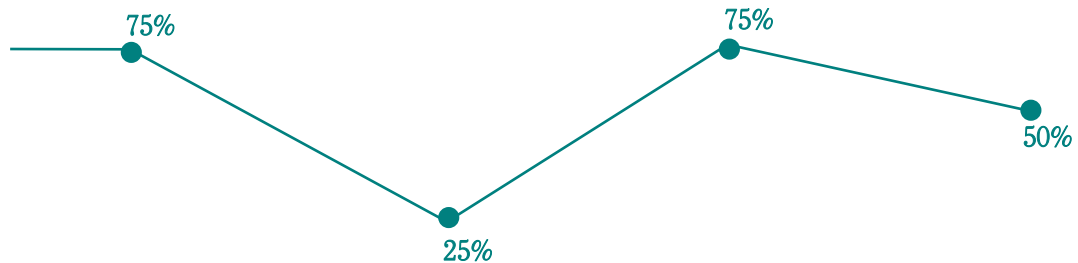
### 성과 (Performance)

- 한겨레신문사는 **안식월 휴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유급휴가 제도 확대시행으로 인해 사용자 감소.)
- 한겨레신문사는 **평균 50%이상의 여성 직원들이 출산 후 육아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안식월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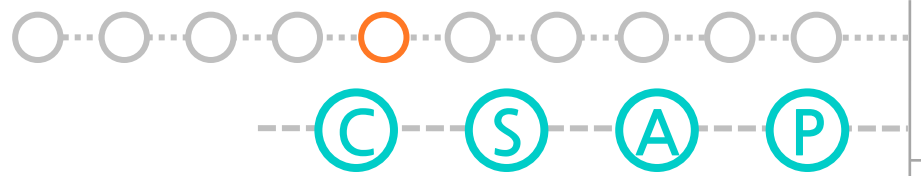


#### ● 출산휴가 후 육아휴가 사용률





# 10대 원칙 이행 내용



## 노동

원칙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공약 (Commitment)

- 한겨레신문사는 고졸 학력이상을 기준으로 호봉 기준표를 마련하고, 미성년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등 아동노동 방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System)

학력 구분	인정 호봉	비고
대졸	14호	중퇴자의 경우 재학 년 수를 경력으로 인정
전문대졸	5호	
고졸	1호	고졸 미만인 자에게도 1호봉을 부여하되 고졸 기준 연령 이내(미성년) 사회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행동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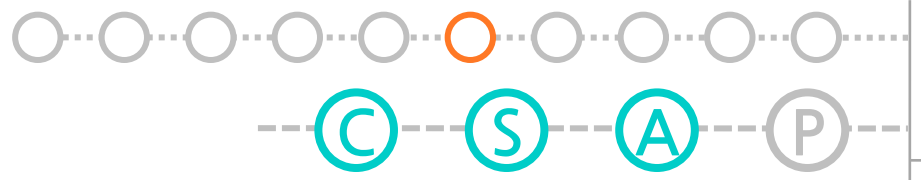
- 한겨레신문사는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효과적인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성과 (Performance)

- 한겨레신문사는 창사 이래, 아동 고용을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 10대 원칙 이행 내용



## 노동

원칙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근절하여야 한다.

### 공약 (Commitment)

- 한겨레신문사는 사규 79조 ‘모성보호와 남녀평등’에 근거해 회사와 조합은 **모성보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하며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특정 성을 이유로 직·간접적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System)

- 한겨레신문사는 기자직, 경영관리직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단일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사는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함께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처리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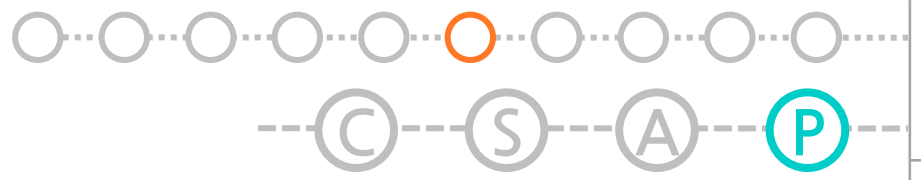
### 행동 (Activities)

- 한겨레신문사는 설립 당시부터 단일호봉제를 시행해 직군별 상대적 불평등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사는 여성권익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임직원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사는 채용 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학력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10대 원칙 이행 내용



## 노동

원칙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근절하여야 한다.

## 성과 (Performance)

- 한겨레신문사는 여성 직원의 비율이 26% 수준이며, 여성회 참여율도 70%를 상회합니다.
- 한겨레신문사는 2005~2006년 언론사 최초로 여성 편집국장을 임명해 여성 인적자원 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모임 명	회원 수 (총 원)	가입 비율 (%)	2009년 주요 활동
여성회	116명 (123명)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에 한차례 여성총회 개최</li> <li>▪ 여성회 주최 '한겨레바자회' 진행</li> <li>▪ 여성휴게실, 수유실, 사내 놀이방 신설, 성추행 방지 마련 등</li> </ul>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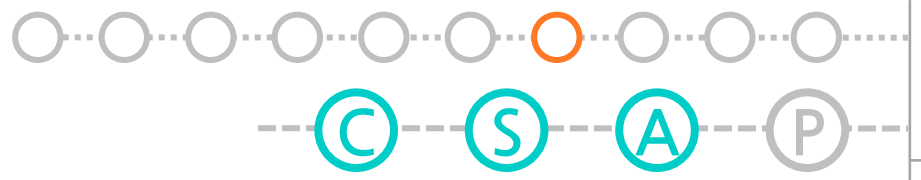


2번

1번 중앙일간지  
최초 여성편집국장을  
역임한 권태선논설위원  
2번 여성회 세미나 현장



# 10대 원칙 이행 내용



##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 공약 (Commitment)

- 한겨레신문사는 사규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2007년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언론사 최초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환경문제 예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System)

- 한겨레신문사는 현재, 도심에서 시행할 수 있는 환경 예방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행동 (Activities)

- 한겨레신문사는 지난 2003년과 2005년 9층과 3층에 옥상녹화 사업을 진행해 에너지 절감효과와 도심 녹지공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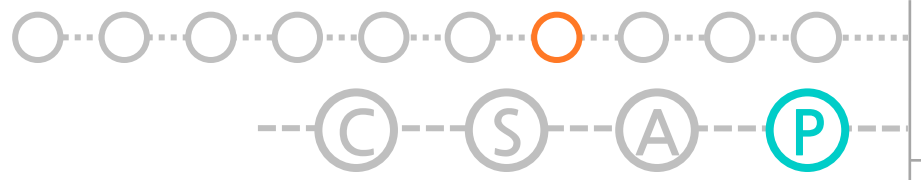


3번

1번과 2번 9층 하니동산  
3번 3층 생태 공원



# 10대 원칙 이행 내용



##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 성과 (Performance)

- 옥상 녹화 사업은 최대 11%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한겨레신문사는 2003년과 2005년에 걸쳐 모두 1,007㎡의 옥상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니동산** 한겨레신문 생테터(비오톱)

사업명 : 도시내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  
 위치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번지  
 면적 : 1,007㎡ (304평)  
 공사기간 : 2005.04.01 ~ 2005.05.10  
 설계감리 : 이태구  
 시공사 : (주)한국도시녹화 www.biotope.co.kr

본 사업은 한국녹색문화재단이 실시하는 2004년 "도시내소규모생물서식공간조성사업"이며 복권기금(녹색자금)을 지원 받아 실시하였습니다.

**생테터(비오톱)란?**  
 생물들이 먹이를 찾고 성장하며, 자신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점차 사라져가는 인간 이외의 생명체들이 도시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되찾아 주는 생태복원의 한 개념입니다.

**습지생테터(비오톱) 만들기**

습지의 선형을 잡고 논흙과 자연습지흙을 일부 옮겨와 습지생물들의 서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습지의 물속과 물가에는 다양한 식물들을 심어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조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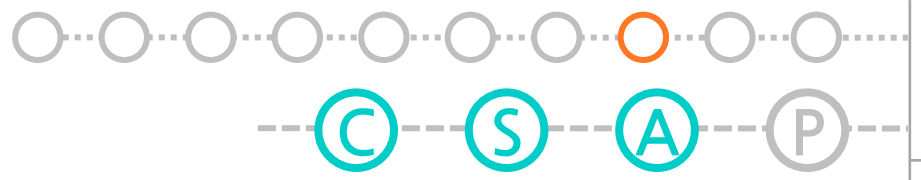
습사리, 왜물개, 개구리 등 습지에서 사는 다양한 생물종을 옮겨와 도심속 작은 생테터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함께이신분들 : 다모어빌드(주), 대림산업(주), 마포지철우권기관, 서울나무병원, 에코하우스(주), 엘그린(주), 영림택재(주), 재촌종합건설(주), 크리본텍수권설(주), (주)한국구조물성능평가원, 한살그린(주)

〈다양한 생물들이 숨어 있어 '비밀의 화원'이라 불리는 하니동산〉



# 10대 원칙 이행 내용



## 환경

원칙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 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 공약 (Commitment)

- 한겨레신문사는 사규를 통해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2007년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언론사 최초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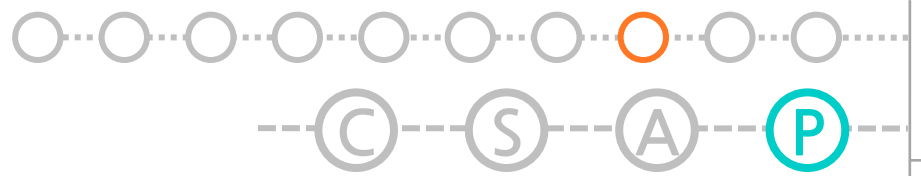
- 한겨레신문사는 작업장 오염물질 차단을 위해 9개 장소에서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 공무부(급지실) : 소음, 조도, 분진(paper dust)
  - ✓ 인쇄실 : 소음, 조도, 유기용제(Toluene, Xylene, n-Hexane, n-Pentane)
  - ✓쇄판실 : 소음, 조도, 유기용제 (Paper Dust, Toluene, Xylene, n-Hexane, n-Pentane)
  - ✓ 폐수 처리장 : 소음, 조도, 유해가스(CO2), 특화물(NaOH), 휴해화학물질
  - ✓ 기계실 : 소음, 조도, 유해가스(CO2)
  - ✓ 변전실 : 소음, 조도
  - ✓ 전산 제작부 : 소음, 조도, 분진(3종 분진)
  - ✓ 제판실 : 조도, 유기용제(Benzene)
  - ✓ 사진부 : 유기용제(Toluene)

### 행동 (Activities)

- 한겨레신문사는 윤전실에서 발생하는 중수도를 화장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사는 전기 절감을 위해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유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사는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사내에서 발생하는 이면지 등 파지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사는 환경 문제 예방을 위해 ‘배포하지 않는 신문(잔지)’ 발행을 삼가고 있습니다.



# 10대 원칙 이행 내용



## 환경

원칙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 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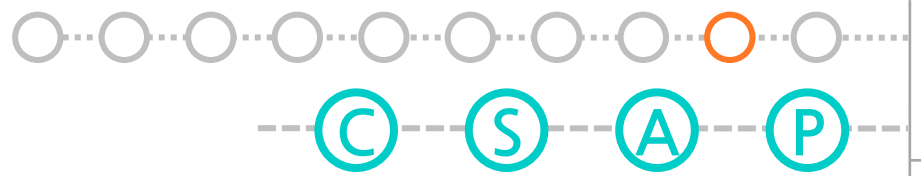
## 성과 (Performance)

- 한겨레신문사의 2009년 물 사용량과 전기 사용량이 2008년 대비 10%이상 감소 하였습니다.
- 한겨레신문사는 전체 종이 가운데, 3.1%를 재활용 해 리사이클링 업체에 매각 했습니다.

	물 사용량	전기 사용량
2008	1,149m <sup>3</sup>	4,004,053kwh
2009	1,030m <sup>3</sup>	3,579,183kwh
개선률	10.36%	10.61%



# 10대 원칙 이행 내용



## 환경

원칙 9: 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여야 한다.

### 공약 (Commitment)

- 한겨레신문사는 사규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2007년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언론사 최초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System)

- 한겨레신문사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동화 된 인쇄장치 등 혁신적인 기기를 꾸준히 도입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행동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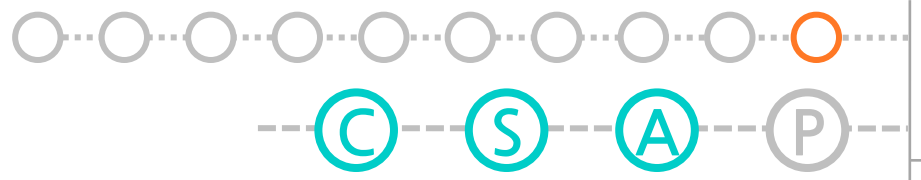
- 한겨레신문사는 윤전기 신문용지 공급 및 파지절감을 위해 2009년 자동견당장치 (Auto Register)와 2010년 잉크 자동 공급장치(Ink leveler)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사는 국내 신문사로서는 최초로 ‘CTS(전산제작, 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성과 (Performance)

- 한겨레신문사는 친환경적 인쇄 기술을 도입해 자원 효율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10대 원칙 이행 내용



##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공약 (Commitment)

- 한겨레신문사는 언론사 최초의 윤리강령을 만들어 업무와 관련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사전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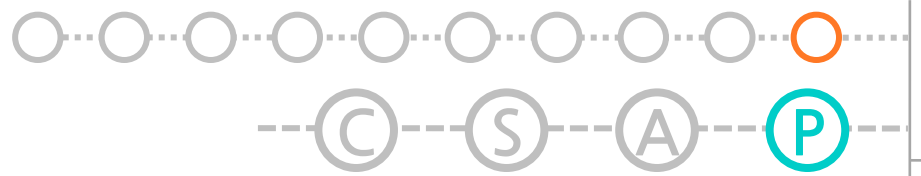
- 한겨레신문사는 전국에 위치한 지국들과 공정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신문고시 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 행동 (Activities)

- 한겨레신문사는 정기적으로 신문사 신뢰도를 조사해 이를 경영 설명회 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신문사는 외부언론활동 시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10여명 내외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10대 원칙 이행 내용



##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성과 (Performance)

-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가 창립 45주년을 맞아 전국의 기자 300명을 대상으로 자기 소속사를 제외하고, **신뢰도**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15.4%의 지지를 받은 **한겨레신문사가 1위를 차지.**”(2009. 8. 19, PD저널)
- 전국 34개 지역신문 편집국장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서울지역 전국매체 가운데 신뢰도 1위” (2010. 1. 20,기자협회보 발표)
- “언론사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설문을 받았는데 3순위까지 모두 종합하면 한겨레를 신뢰한다는 답변이 94명으로 63.9%나 됐다.” (2010. 1. 5, 미디어오늘)
- 한겨레신문사는 촌지 받지 않는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1988년 5월 5일, 언론사 최초로 윤리 강령을 선포한 한겨레신문 임직원들이 윤리강령에 서명하고 있다.〉